

# ‘블랙리스트의 詩心’ 촛불로 타오르다

### 고은·박몽구 시인 등 61명 ‘천만 촛불 바다’ 퍼내



고은·김준태·김선태·나종영·나혜철·박남준·박몽구·이은봉 씨 등 남도를 대표하는 시인들이 촛불집회를 기념하기 위한 공동시집 ‘천만 촛불 바다’(실천문학)를 펴냈다.

시집 발간에는 남도 출신 시인을 비롯 국내 대표 시인 등 모두 6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들로 국정 농단을 질타하고 국민주권의 상실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를 시로 형상화했다.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는 고은 시인에서부터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간 김준태·김선태 시인, 오월시 동인이었던 나혜철·박몽구·나종영 시인, 광주대 문장과 교수인 이은봉 시인까지, 이들 문인들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

우겠다는 국민의 외침에 저마다 시로 응답했다. 또한 강은교·신경립·이승하·이원규·이재무 시인 등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중견시인들의 주옥같은 작품도 담겨 있다.

“백한 살 할머니도/ 늙은 아들 손잡고 나오셨네// 다 나왔네/ 다 나오셨네/ 흑에 나오지 못하였거든/ 집집마다 뜻을 걸고/ 일터에도 막을 걸었네”(고은 ‘다 나오셨네’ 중)

“이렇게 새벽은 함께 맞는 것이다/ 서로 증오의 벽을 허물며/ 오일팔 때도 차마 넘지 못한 벽/ 육구구 때 이한 열이 끝내 다 가지 못한 길/ 이어서 북악의 얼음을 넘어서



고은 시인 박몽구 시인

간다”(박몽구 ‘빙등을 담으며’ 중)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 13번째 이어져오고 있는 촛불 집회는 1000만 명을 넘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이끌어낸 ‘정치혁명’이자 ‘시민혁명’이기도 하다. 이처럼 시인들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촛불 바다’로 상징하면서 촛불은 우리 모두의 양심이 자정의라고 주장한다.

실천문학사 관계자는 “시집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광장에서 바로세우겠다고 나선 국민의 외침에 대한 시인들의 서정적 응답”이라며 “이 시집에 함께한 시인들 역시 블랙리스트들이고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집에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 중 확인 가능한 6367명의 명단과 촛불집회 일지가 수록돼 있다. 출판사는 수익금 일부는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 세월호 참사 추모사업과 문화예술인 권리증진 사업에 쓰인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민동석 전 외교부 차관

### 아중동지역협력 대사 임명

정부는 경제 활로 개척과 금융·외환시장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해 국제금융협력 대사와 주요 지역별 지역경제협력 대사 등 5명의 대외직명 대사를 신설, 임명했다고 외교부가 지난 31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중동지역협력 대사에 해남 출신 민동석 전 외교부차관 제2차관, 국제금융협력 대사에 신재운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대외직명 대사 지정안이 심의·의결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또 아시아산업협력대사에 김영과 전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을, 아시아인프라협력 대사에 이복남 서울대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중남미지역협력 대사에 신승철 전 주베네수엘라 대사를 임명했다.

대외직명 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가 갖춘 민간 인사에 대사 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사 직명만을 부여하는 무보수 명예직이며, 임기는 통상 1년이다.

외교부는 “이번에 임명된 대사들은 해당 지역이나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여서 우리 경제 활로 개척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일본인의 위안부 사과 편지

지난 설 연휴에 한 일본인이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을 방문해 놓고 간 편지와 노란색 프리지에 꽃다발. /연합뉴스

一人の人間として、哀悼の意を表します。  
一人の日本人として、謝罪します。  
誠に、申し訳ありません。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사과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 애보고 살림하는 남성 늘었다



자료/통계청

## 애 보고 살림만 하는 남편 늘어

### 전년 16만1천명...2010년 후 최대

사회 인식 변화와 함께 전문직 여성의 증가, 전반적인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집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살림을 떠맡는 남자, 이른바 ‘전업주부’(専業主夫)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가사노동을 하는 남자는 모두 16만1000명으로 2010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가사활동을 하는 남자가 15만4000명이었고, 육아에 전념하는 남자가 7000명이었다.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는 남성의 수는 2003년 10만6000

명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0년 16만1000명까지 늘어났다가 2011년 14만7000명, 2012년 14만7000명, 2013년 14만4000명, 2014년 13만명까지 줄었다.

그러나 2015년 15만명으로 증가세 전환한 뒤 지난해 16만1000명까지 늘어났다. 최근 2년새 24% 급증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세는 가사 전담 남성이 주도하고 있다. 통계청은 초등학교에 입학 전 미취학 아동을 돌보기 위해 집에 있는 사람을 ‘육아’로, 초등학교 이상인 자녀를 돌보면서 자기 가정에서 가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가사를 돌볼 책임이 있었다고 답한 사람을 ‘가사’로 분류하고 있다.

육아활동을 하는 남성은 2012년 5천명, 2013년 6000명, 2014년 6000명, 2015년 8000명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700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연합뉴스

## 특검, 최순실 2차 체포영장

### 미안마 원조사업서 사익 챙긴 정황 포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두 번째 체포영장을 지난 31일 오후 청구했다.

특검팀은 미안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이 최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지난해 22일 이후 9일 만이다. 당시 특검팀은 최씨가 약 한 달 사이 6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25일 영장이 집행돼 특검 사무실에 강제 소환된 최씨는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했다. 최씨가 이틀간 진술 거부권(독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엔 진적이 없었고, 이후 다시 소환에 불응하자 특검은 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최씨가 계속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이르면 1일 집행할 전망이다. 최씨의 형사재판 일정 등이 고려 사항인데,

이날 이후 이번 주엔 최씨의 재판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특검은 최씨가 지난해 5월 삼성전기 전무 출신인 유재경(58)씨를 미안마 대사로 앉히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잡고 있던 쟁기기와외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권 쟁기에 도움을 받으려 유 대사를 추천한 최씨가 미안마에서 한류 조성교 교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K타운 프로젝트’에 특검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회사 지분을 요구해 쟁겼다는 게 특검이 의심하는 부분이다.

이날 특검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 대사는 조사에서 최씨를 여러 차례 만났고 최씨의 추천으로 대사직에 오른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행위에 적용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특검 “우병우, 문화부 인사개입 의혹 처벌 대상”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급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우수석의 인사 개입 의혹에 관해 “정신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민정수석이 권한 한 부분이 있다면 직권남용이 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브리핑에서 말했다.

이 특검보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행사하는 권한이 상당히 많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검은 고위 공직자 인선에 앞서 인사 검증 등을 담당할 우 전 수석이 본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특정 인물을 좌천시키도록 개입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우 전 수석의 뜻에 따라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문체부 4~5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 ‘국정농단’ 처리 불만, 국회에 불지르려던 옛장수 집유

‘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 처리에 불만을 품고 국회에 불을 지르려던 옛장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옛장수 김보(7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5일 밤 10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담장 안쪽 두 군데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정문에서 의원회관 쪽으로 약 150m 떨어진 지점 담장 안쪽으로 휘발유 통과 불붙인 목장갑을 연이어 던졌다.

지나가던 한 시민 신고를 받은 국회 직원들이 불을 끄자 김씨는 곧이어 남문에서 서문 방향으로 30m 떨어진 지점 담장 안쪽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질렀다. 이번에는 순찰 중이던 국회경비대 직원이 진화했다.

이틀 뒤 강릉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조사에서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처리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지만, 김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불붙이 빨리 진화돼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17-23호

###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1단계) 분묘개장공고(1차)

광주광역시 도시 제2016-205호(2016. 11. 02.), 제2016-182호(2016. 10. 01.)로 승인 및 지형도면 고사된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제1(1단계) 사업지구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분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개장(화장후 봉안당 안치)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 개장대상 분묘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요기동 일원
- 소재지별 분묘가수

지번	가수	지번	가수	지번	가수	지번	가수
연산동 283	1	연산동 688-9	1	연산동 산72-4	16	요기동 454-4	6
연산동 284-7	2	연산동 703	7	연산동 산72-5	9	요기동 527	2
연산동 641-10	3	연산동 746-1	5	연산동 산73-5	5	요기동 528-4	2
연산동 650-8	2	연산동 산66-1	6	연산동 산82	9	요기동 산63	23
연산동 650-158	8	연산동 산66-4	4	요기동 427	1		
연산동 686-1	2	연산동 산70-13	1	요기동 449	1		

- 개장사유: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지구 편입
- 공고기간: 2017년 2월 1일 ~ 2017년 5월 4일
- 개장방법

- 유연분묘: 분묘연고자 또는 관계인 신고 및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자(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 유연분묘 개장절차

- 분묘소재지 및 묘면 확인 →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연고자 신고 → 증명서류 구비 후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연산동: 평동주민센터, 요기동: 동곡동 주민센터) → 개장신고필증 신청 및 발급 → 개장 → 분묘이전비 청구 및 지급

- 무연분묘 이장(안치) 장소 및 기간

- 광주광역시 북구 영락공원로 170(효령동 100-2번지) 광주영락공원 봉안당, 안치기간 10년

- 신고 및 문의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보상팀 ☎ 062-600-6718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빛고을고객센터(1층 고객행복센터 내 보상팀)

- 기타

- 신고된 연고자에게는 개장절차에 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식별이 곤란하여 공고에 누락된 분묘 및 공사시행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2월 1일

사업시행자 평동삼차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주회사  
보상수탁자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2017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47)	광주교육대학교(157)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7. 3. 3.(금) 08: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7. 3. 4.(토) 08:10 (특급반)	·월요일 오후반: 2017. 3. 6.(일) 14:1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7. 3. 2.(목) 08: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7. 3. 4.(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7. 1. 18(수)~3. 4.(토)	2017. 1. 18(수)~3. 4.(토)
수업기간	2017. 3. 3.(금)~2017. 8. 12.(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7. 3. 2.(금)~2017. 8. 12.(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현문학회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별과 후 교육감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수 대급~사범취득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현문학회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별과 후 교육감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수 대급~사범취득기회 부여
문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선명공: 010-3614-4160	·문 의: 062950-4243 ·지도교수선명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

담양 대덕 특산물 호두농장

무공해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담양 대덕의 특산물로서 부모님 효도선물, 명절선물로 최고입니다!!

어린이들 머리에도 좋은 호두 하루 3~4알로 건강을 지키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안전성 검토 무농약 인증

2016년 친환경농산물 우수

담양 대덕 호두농장 대표 진철호 061-382-4728 / 010-3604-6712

진남 담양군 대덕면 남덕리로 424-2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천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2017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2017년 1월 23일(월) ~ 2017년 3월 10일(금)  
·교육기간: 2017년 3월 2일(목) ~ 2017년 6월 8일(목)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수강료: 20만원 (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igeolnet [인터넷 수강신청]  
·접수문의: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송용욱 010-9416-1200

2017년도 1학기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온라인신청: 과정명(필) 수강신청 핸드폰인증 신청 수강료납부  
·오프라인신청: 방문접수, Fax접수(520-4245), 전화접수(520-4241~4243, 4248)  
·수강료: 20만원(예금주: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국민은행 773901-01-476736  
·기간안내: 수강신청기간: 2017. 2. 1(수) ~ 2. 28(화)  
교육기간: 2017. 3. 6(월) ~ 6. 12(월)  
매주 월요일 주간 3시~5시 야간 7시~9시  
·상담지도교수: 송용욱 010-9416-1200